

7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김활란의 성장 과정

- 제물포와 기독교
- 이화학당 입학
- 이화학당 대학과

02. 김활란의 여성계몽운동

- 조선 YWCA 연합회
- 미국 유학 후 김활란의 활동
- 농촌계몽운동과 두번째 미국 유학

03. 김활란의 일제 협력

- 신사참배 강요와 기독교계 학교의 위기
- 조선 여성의 전쟁 동원
- 김활란의 변명

04. 김활란과 여성 정치

-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활란
- 국회의원 선거와 낙선
- 김활란의 정치 활동에 대한 평가

05. 고황경의 성장 과정

- 고황경의 학창시절
- 일본 유학시절
- 미국 유학시절

06. 고황경의 사회사업

- 경성자매원 설립
- 영아원과 가정료 설립
- 고황경의 친일 협력

07. 고황경의 정치 참여

- 교육재건과 국가재건
- 부녀국 초대 국장
- 영국 유엔협회 순회 강연

08. 고황경의 신념

- 대한어머니회
- 서울여자대학교 설립



7주차 |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7주차 | 학습목표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학습목차

학습목표

- 사회사업가이자 행정가이며 교육자였던 고황경의 학창시절을 통해 여성 엘리트의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고황경의 학창시절
- 일본 유학시절
- 미국 유학시절



고황경의 학창시절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고황경의 유년시절

- 1909년, 서울 출생
- 교육열이 높은 기독교 가정
- 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 부모



고황경

[출처01] 《京城日報》 1939.1.3. 2면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고황경 부모의 다짐

- “남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이 둘째딸을 어쨌든 아들보다 더 낮게 길러보자.
그래서 다시는 그들 입에서 둘째딸이 아들이었다더라면 하는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
(“눈물도 아껴 흘리시라던 그 말씀”, 어머니 편찬회, 《어머니》 상, 창조사, 1969, 61쪽)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1918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입학

5年(昭和三年)京城女子高等普通学校建校記念式 校學通會高等女子女
子高等普通学校建校記念式 校學通會高等女子女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출처02] 서울역사박물관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공부도 항일하는 심정으로

- “아무리 그때 학생들의 나이는 어렸지만 기회만 있으면 일본에 반항하고 싶고, 한창 그 나이에 소녀다운 꿈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힘을 길러서 일본을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겠느냐는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때가 제일 많았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공부도 항일하는 심정으로

- 그 당시 일본은 잔혹한 식민정책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농토를 동양척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빼앗은 때가 있었는데, 그 결과 우리 한국 농민들은 빈손 들고 정처 없이 만주 벌판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다.
바가지 한두 개를 얹은 큼직한 보따리를 등에 지고 만주땅을 향해 가는 농민들이 서울 거리에 수두룩했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공부도 항일하는 심정으로

- 나라를 잃은 설움이 이처럼 혹독할 수가 있느냐 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서울 시민들도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무력함을 한탄할 뿐이었다.”
《나의 소녀시절》 (범우사, 1982)



고황경의 일본 유학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고황경의 일본 유학

- 1924년
 - 일본 도시샤여학교 전문학부 입학
(‘도시샤여자전문’으로 개칭)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5차시 고향경의 성장 과정



공부도 항일하는 심정으로

- “내가 일본에 가서 여자전문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 나이는 우리 나이로 겨우 열여섯 살이었다. 바다를 건너 먼 이국 땅에 왔다는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라는 점에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5차시 고향경의 성장 과정



공부도 항일하는 심정으로

- 우선 공부에 있어서 그들보다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은 단단히 갖고 있었지만 독립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는가 하는 구체적 문제를 생각하려면 절벽에서 있다는 느낌을 갖던 때였다.”

《나의 소녀시절》(범우사, 1982), 44쪽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5차시 고향경의 성장 과정



민족운동 실천을 각오

- “나는 일본에 건너와서 사람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한국 노동자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는 한국 교회에 나가서 한국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다. 천진한 어린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쳐 주면 힘차게 잘 부르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은 옷은 너무나 비참했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향경 | 5차시 고향경의 성장 과정



민족운동 실천을 각오

- 어떤 아이는 일본 옷인지 한국 옷인지 구별도 못할 정도로 발가숭이 몸을 아무렇게나 가렸을 뿐이었다. 그렇게 입힐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인들 오죽했으랴! 최하의 직업을 가져도 많은 식구를 살리기 벅차서 남에게 수모를 받는 빈민굴 생활을 면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직업을 못 가진 우리의 동족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앉았다는 것을 알았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민족운동 실천을 각오

- 일본 사람들은 그들을 천민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뿐, 부모 다음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었다. 만주로 가고 일본으로 간 우리 동포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정책에 희생당한 사람들이란 것을 생각할 때 더욱 뼈가 아파서 그 당시 우리 유학생들은 모이기만 하면 무조건 독립이 급하다고 외치며 때로는 흥분해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울부짖는 사람도 많았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민족운동 실천을 각오

- 그렇지만 당장 해결될 문제가 못 되니까 우선 그 불쌍한 한국 어린이들을 주일학교를 통해 열심히 사랑해주자고 서로 격려를 했다. 그들이 가정에서 우리 한국말도 변변히 못 배웠고 일본말도 빈민굴에서 거친 말을 그대로 배워서 마구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잡아주면서 쉬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의 소녀시절》(범우사, 1982), 44쪽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고황경의 일본 유학

- 1928년
 - 도시샤여자전문 영문과 졸업 후 도시샤대학 법학부 입학
 - 사회사업에 대한 관심
 - 일본 YWCA의 야간 영어반 활동
 - 재일본조선인들의 교회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고황경의 일본 유학

- 1931년
 - 도시샤대학 졸업 후 미국 미시건대학 유학 길에 오름

고황경의 미국 유학

고황경의 미국 유학

- 1933년
 - 미시건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 1933년
 - 미시건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진학
 - 사회집단과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에 관심

미국 유학 중 학생회 활동

- 1933년
 - 북미유학생총회 중서부학생회 소속
- 1934년 - 시카고에서 열린 동양학생회에서 강연

“한국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만 경제개조도 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제개조도 실현하기 어렵다.”

고황경의 강연

- ‘오늘날의 조선여성’
 -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과 구식 가족 제도 사이의 불일치
 - 신규 문화 교체와 사회 개선의 필요성 강조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고황경의 강연

-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사례
 - 한국 여성의 강한 사회 개혁 의지와 역량을 역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여성의 직업과 독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독립의 의미 강조

- “신여성은 구가족제도를 받들며 동화하려고 애쓰나 학교에서 주는 교육은 극소부분이 가족제도를 위한 준비교육이요, 대부분이 과학지식이었든 까닭에 갑자기 구가정에 들어선 여성은 자기의 입장을 잊어버리기 쉽다. 화학시험을 해보았으므로 몇 도의 열이 밥을 끓게 하는 줄 아나 익숙한 식모는 될 수 없으며, 기하를 배웠으므로 직선과 곡선의 작용을 증명할 수 있으나 맵시 있게 옷을 지을 수는 없고,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여성의 직업과 독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독립의 의미 강조

- 정사(正邪) 선악을 논하는 윤리도덕을 배웠으나 맹목적 복종에 속을 썩여 본 적이 없음으로 맘에 드는 머느리 되기는 썩 어려우며, 개성의 발휘를 힘써온 자로서 남편의 인형이 되려니까 낙제하는 수밖에 없다.”

고황경, ‘조선여성과 가족제도’, 《여성》 1937년 10월호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미국의 범죄자 수용시설 견학

- 디트로이트 빈민가의 사회복지관 방문
- 1935년 부인 감옥인 ‘여자 감화원’ 견학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극복의 면류관

- “장티푸스에 걸리면 3주 이내에 죽든지 살든지 하는 결판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경우는 어찌된 영문인지 3주가 두 번 반이나 돌아올 때까지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재탐, 삼탕 앞으셔서 근 40여 일 동안은 의식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살아났습니다. (.....) 퇴원할 때쯤 되니까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극복의 면류관

- ‘당신은 일생 동안 다시는 장티푸스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심한 전염병에
대해서도 강한 면역성이 생겼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죽을 고비를 넘겼기는
하지만 일생 동안 담보 하나는 단단히 가지게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보아스사, 1989), 118쪽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이화여전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학위논문 집필

- 1937년
 - 미시건대학 사회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 <디트로이트에서 발생한 소녀범죄의 계절적 분포
(Seasonal Distribution of Girl Delinquents in Detroit)>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학습정리

- 고황경의 성장 과정을 비롯해 일본 유학과
미국 유학 시절

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 김활란과 고황경 | 5차시 고황경의 성장 과정



다음 차시에서는

- 고황경의 사회사업

SOURCES



[출처01] 《京城日報》 1939.1.3. 2면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소장)

[출처02] 서울역사박물관(<https://museum.seoul.go.kr>), 유물번호: 서27650, 아카이브번호: 77913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